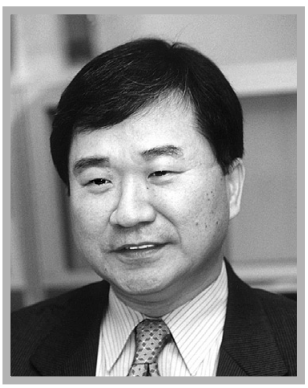
전임 편집인의 글

대한의사협회지가 가야 할 길



이 철
대한의사협회지 前 편집인
울산대학교병원장

한마디로 우리 의료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당장 강력한 투쟁과 끈질긴 설득도 필요하겠으나, 궁극적 해결책은 의사들 스스로 자질과 실력을 향상시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사 회원들이 자질과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국민들이 의사들을 신뢰하도록 하고, 우리들이 의사로서의 긍지를 회복하는데 대한의사협회지가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지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의사협회지를 우리 회원들이 매달 기다리고, 또 읽고 나서는 오래 간직하고 싶은 회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학계의 여러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대한의사협회지가 가야 할 길을 새롭게 정하고, 편집 · 디자인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도 자문과 조언을 수렴하여 표지 디자인, 서체, 인쇄와 용지의 질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개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고, 최고 전문가 집단의 회지로서 신뢰받는 내용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설, 강좌 등의 교육적 내용 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 모두에게 관계되는 주제에 관한 원저도 게재하여 학술잡지의 성격도 점진적으로 늘여서 의협 창립 100주년을 맞게 되는 2008년까지는 대한의사협회지를 우리 나라 의료를 대표하는 국제적 수준의 학술 · 교육 잡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일 만큼은 모든 회원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한의사협회지를 회원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제적 수준의 학술 · 교육 잡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과 같이 3년 임기의 의협 학술이사가 편집인을 겸임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지의 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열정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전담 편집인으로 위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양대병원 진단방사선과 교수이신 함창곡(咸蒼谷) 선생님을 신임 편집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함 선생님은 1967년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대한방사선의학회지 편집위원장,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세계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사로서 방사선과학 뿐만 아니라 의학 학술지의 편집 간행 분야에서도 국내외에서 높이 인정받는 분으로서 머지않아 우리 협회지를 국제적 수준의 학술 · 교육 잡지로 발전시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의협이 처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협회지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고한 지침과 지원을 해주신 신상진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여러분, 지제근 대한의학회장님과 학계, 의료계의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협회지를 오늘과 같이 발전시켜주신 전 · 현직 편집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도약할 대한의사협회지의 발전에 회원 모두의 동참과, 어려운 임무를 맡아주신 신임 함창곡 편집인과 편집위원들께 열렬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